

[로스쿨 소식]

##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최종합격자 현황(연령별)

### I. 개요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생들은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지방 소재 로스쿨은 3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20대의 입학률이 급증하면서 '서울=20대, 지방=30대'라는 로스쿨 입시 등식이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박창식 의원이 최근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5학년도 25개 로스쿨의 입학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최종합격자(입학생) 2,084명 중 28세이하는 1,418명(68.04%), 29세이상 34세이하 501명(24.04%), 35세이상 165명(7.92%)이다.

#### 1. 서울 20대 많고 지방은 30·40대 많아

서울대 로스쿨은 올 입학생 153명 중 무려 96.1%(147명)가 28세이하로 전국 최고비율을 기록했다. 29세이상 34세이하는 3.9%(6명)였고 35세이상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어 고려대(95.2%) 중앙대(94.2%), 연세대 90.6%, 한양대(87.9%), 이화여대(84.0%), 성균관대(81.0%), 경희대(75.8%), 서울시립대(72.7%), 한국외대(69.2%) 순으로 28세이하의 비율이 높았다. 이들 10개 로스쿨은 28세이하의 전국 평균 68%보다 높았다.

반면 영남대 로스쿨은 입학생 71명 중 28세이하는 13명(18.3%)에 불과했다. 대신 29세 이상이 58명(81.7%)으로 전국 최고 비율을 보였다. 이어 강원대 62.5%, 동아대 61.4%, 원광대 60.9%, 서강대 53.7%, 경북대 51.6%, 건국대 48.7%, 전북대 45.8%, 제주대 45.5%, 아주대 41.2%, 충남대 39.4%, 충북대 39.2%, 인하대 38.0%, 부산대 37.8%, 전남대 35.2% 순이었으며 이들 로스쿨은 전국 평균 32.0%를 웃돌았다.

서울 소재 12개 로스쿨 중 서강대가 29세이상 비율이 높고 13개 서울 외 지역 로스쿨 중 전남대가 28세이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돋보인다. 서울 소재 로스쿨은 20대 젊은층이, 지방 로스쿨은 30~40대층이 많이 입학했다는 결론이다.

이같은 결과는 비단 올해만의 현상이 아니다. 로스쿨 지원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낮아지면 서 입학자들의 평균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대학들이 학업성취도 등을 고려한

인위적 입시 전략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 2. '28세이하' 2009년 52%...2015년 68%

첫 입학 선발이 이뤄진 2009학년 입시 결과에서는 28세이하의 전국 평균 비율이 52.3%였지만 이후 2011학년 61.8%, 2013학년 66.1%, 올해 68.0% 등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로스쿨 입문 시험인 법학적성시험(리트)에서의 저령화에 따른 것으로 로스쿨 지원에 30대 이상의 지원자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험가의 한 전문가는 “상당수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로스쿨로 갈아탔고 일반 사회인들의 로스쿨 지원이 감소하면서 갓 대학을 졸업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로스쿨의 주된 수요층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레 분석했다.

지난 7년간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28세이하의 비율에서 서울, 지방간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서울 로스쿨들의 20대 풀림이 뚜렷해졌고 지방 로스쿨들은 30대이상 입학생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원인은 무엇일까. 로스쿨의 입시 전략도 한 몫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로스쿨 인가대학의 법과대 학생선발이 단절되고 이들의 공급이 소진되면서 서울 로스쿨들은 소위 상위권 대학의 젊은 타 전공 출신을 선호하면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즉 변호사시험 합격률 감소 전망 속에서 교수수월성과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20대가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이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방대 로스쿨들은 변호사시험 등에서 직접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상위권 대학의 법과대 출신 또는 사법시험 유경험자 등을 선호하게 되면서 30, 40대가 증가하게 됐다는 가능성이다.

## 3. “인위적 선발 탓” vs “지원 인력풀 결과”

수험전문가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수험가의 한 관계자는 “서울권, 특히 서울대 등 주요 로스쿨 등에는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층의 지원이 많고 상대적으로 합격률도 높다”면서 “이는 학업수월성, 성취도 등에서 20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도 한 몫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서울 주요 로스쿨은 20대를 선호한다는 것은 기우라고 말하고, 지방 다수 로스쿨들은 사법시험 유경험자를 많이 뽑는다는 것은 추측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서울과 지방간의 연령대별 뚜렷한 풀림현상은 인위적인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반면 A학원 관계자는 “로스쿨 3기 이전까지는 군복무 후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경험자들의 입학이 제법 있었지만 지금은 대학 재학생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학 저학년년부터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추세다. 로스쿨에 대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학점관리, 봉사활동, 리트 등에 충실하게 대비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 재학생들의 이같은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준비된 젊은 대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로스쿨이 굳이 인위적으로 입학생들 선별할 이유는 없을 듯하다”면서 “다만 지방 로스쿨은 지원자 인력풀이 적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등 현실적 문제에서 사법시험 유경험자 등을 선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B로스쿨 교수 역시 “입학전형 성적결과에 따른 것이지 인위적인 선별은 없었다”며 “수험가의 젊은층 선호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지방 로스쿨 한 관계자 또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이들이 지원을 많이 한 결과”라며 “사법시험 경험자라고 해서 특별히 배려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II. 2015학년도 법전원 최종합격자 현황(연령별)

학교명	~22		23~25		26~28		29~31		32~34		35~40		41~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강원대	0	0	2	4	5	4	4	5	6	4	6	0	0	0	23	17	40
건국대	0	0	2	6	6	7	8	5	1	0	5	1	0	0	22	19	41
경북대	0	1	9	12	29	10	28	10	12	2	10	2	1	0	89	37	126
경희대	0	0	8	8	20	11	10	1	2	1	1	0	0	0	41	21	62
고려대	2	4	28	36	37	13	5	1	0	0	0	0	0	0	72	54	126
동아대	1	1	3	4	14	9	7	5	10	3	13	3	10	0	58	25	83
부산대	0	2	8	14	33	22	15	11	10	7	4	1	0	0	70	57	127
서강대	0	0	3	0	7	9	8	7	3	2	1	1	0	0	22	19	41
서울대	3	4	49	44	32	15	0	2	2	2	0	0	0	0	86	67	153
서울시립	0	0	13	7	15	5	4	2	6	0	1	1	1	0	40	15	55
성균관대	2	8	26	31	30	5	15	6	3	0	0	0	0	0	76	50	126
아주대	0	0	3	6	13	8	5	4	8	1	1	2	0	0	30	21	51
연세대	1	3	22	42	40	7	3	1	5	3	0	0	0	0	71	56	127
영남대	0	0	2	3	7	1	8	6	11	4	13	4	11	1	52	19	71
원광대	1	0	1	2	11	10	8	3	7	2	15	2	2	0	45	19	64
이화여대	0	2	0	46	0	36	0	11	0	5	0	0	0	0	0	100	100
인하대	2	1	5	11	8	4	6	1	3	2	6	1	0	0	30	20	50
전남대	1	0	7	17	29	27	12	6	12	3	7	3	1	0	69	56	125
전북대	0	0	1	12	20	12	8	7	14	1	7	0	1	0	51	32	83
제주대	0	0	1	3	8	12	6	2	5	2	1	0	1	0	25	19	44
중앙대	0	3	8	19	12	7	2	1	0	0	0	0	0	0	22	30	52
충남대	5	0	6	8	28	16	8	5	13	4	7	2	2	0	69	35	104
충북대	0	0	1	11	19	14	6	10	5	1	3	2	1	1	35	39	74
한국외대	0	0	3	6	21	6	6	0	9	0	0	1	0	0	39	13	52
한양대	0	2	16	33	26	17	4	5	2	0	1	1	0	0	49	58	107
계	18	31	227	385	470	287	186	117	149	49	105	27	31	2	1186	898	2084
총계	49		612		757		303		198		132		33		2084		
비율	2.35%		29.37%		36.32%		14.54%		9.50%		6.33%		1.58%		100%		

(박창식의원 및 법률저널 인용)